

• 사사기 1:19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을 통해 땅을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이는 가나안 정복 과정을 통해 지휘관이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훈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약속 안에서 옛 삶의 방식, 즉 죄의 습관을 버리고, 믿음의 군사로 거듭나길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통해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러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유다에게 승리를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삿 1:2). 그러나 유다 자손은 두 번의 전쟁에서 1승 1패의 상반된 결과를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며 전쟁에 임했을 때는 승리했지만, 적의 철 병거에 눈과 마음을 빼앗기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적의 기세와 자신들의 무력함에 눌려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제대로 누리지 못한 것입니다.

한계를 넘어서는 순간, 계산은 소용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가리키시는 방향을 향해 힘써 전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힘써 반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싸울 수 있습니다. 때로 상황과 문제에 압도되어 동력 자체를 잃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적 겁쟁이 되어 전쟁을 시작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전투 없이는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승리를 약속하시고, 전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우리는 이미 이긴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합니까?

- ① 나에게 약속하신 땅(승리)은 무엇입니까?
- ② 나를 주저하게 만드는 적의 무기는 무엇입니까?